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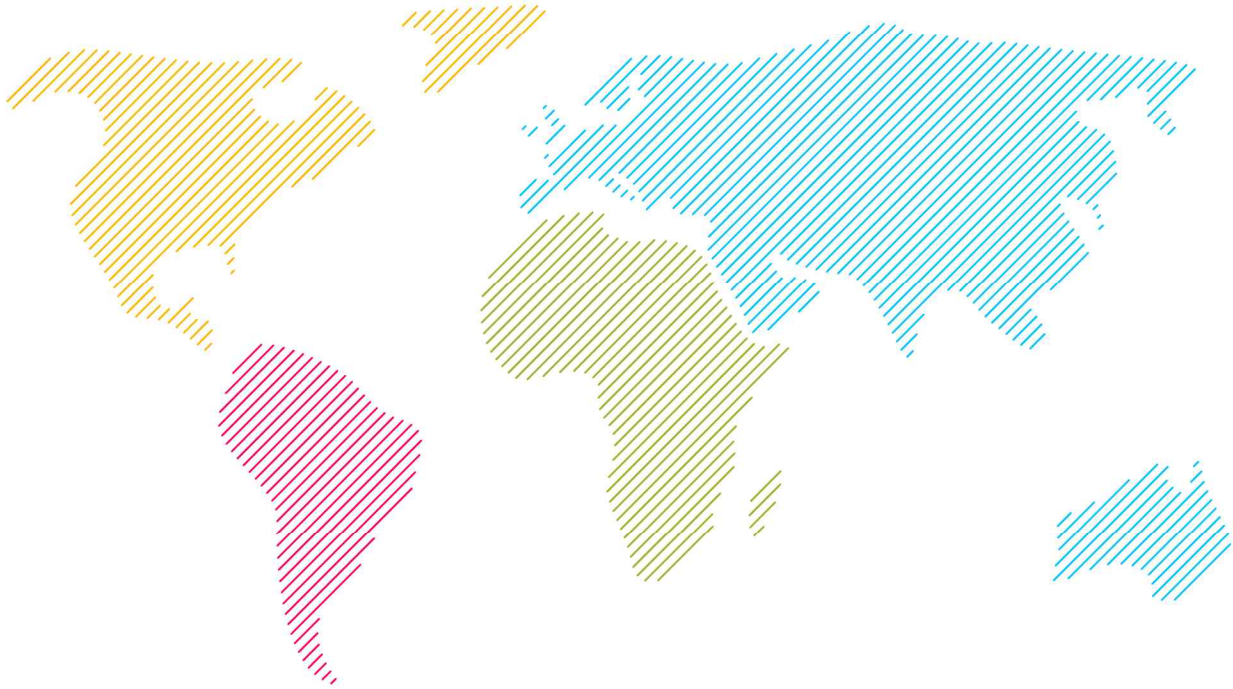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발전 현황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발전 현황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요약

- ▶ 신남방정책이 인도 및 아세안과의 새로운 협력시각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5개국과 아세안 2개국으로 구성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이하 빡스텍)의 발전 현황과 주요 성과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함.
- ▶ 빡스텍은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태국 7개국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로 1997년 방콕에서 설립, 2018년 기준 출범 21주년이 되었음.
 - 빡스텍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인력,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역 및 투자, 교통, 통신, 에너지, 문화, 관광을 포함한 14개임.
 - 그러나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 규모 차이,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문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의 관심도나 연구도 미미한 실정임.
- ▶ 최근 빡스텍 역내 교류는 인도의 빡스텍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증가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16년 인도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빡스텍 정상을 초대하는 등 국제사회에 빡스텍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인도-미얀마-태국 간 고속도로 건설, 인도-네팔 철도 개설 등 인도는 인프라 개선과 빡스텍 FTA 체결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 ▶ 빡스텍은 인도의 '신동방정책', '주변국우선정책'의 접점지로, 인도는 빡스텍을 통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인도정부는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빡스텍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쌈(Assam), 미조람(Mizoram)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북동부 지역은 빡스텍 회원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의 접경지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며, 일본은 2017년 일·인 동방포럼을 발족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빡스텍의 성장이 예상되는바 이 지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지역을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북동부 지역 협력], [주요 분야별 협력]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기술 협력, EDCF 등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 참여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음.
 - [빡스텍 사무국 지원 및 협력] 빡스텍 정상회담 및 주요 분야별 회의에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논의해볼 수 있음.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빡스텍 회원국 청소년 방문 프로그램 및 학술, 문화 관련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차 례

1. 머리말

2. 빙스텍 출범 배경과 주요 성과

가. 출범 배경

나. 주요 협력 분야 및 성과

3.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나. 한국의 빙스텍 무역·투자 현황

다. 빙스텍과의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1. 머리말

■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 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는 동서남아 7개 국가로 구성된 지역 기구(regional organization)로, 1997년 상호 기술 및 경제 협력을 위하여 출범함.¹⁾

- 빔스텍은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와 미얀마, 태국으로 구성되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량으로서, 풍부한 노동인력,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 규모 차이,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문제로 교역 및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빔스텍 관련 국내의 관심과 연구도 미미한 실정임.

■ 2018년은 빔스텍 출범 21주년으로 방글라데시 다카에 사무국 개설(2014년), 같은 해 8월 제4차 정상회담 개최 등 회원국 간의 교류와 연계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음.

- 출범 당시 총 6개였던 협력 분야도 14개로 늘어났으며, 장관급 회의, 전문가회의, 워킹 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빔스텍 회원국 내 교류는 인도가 빔스텍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모디 총리는 2016년 인도가 개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빔스텍 정상을 초대하는 등 빔스텍의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이끌었고, 관세 협정·인프라 건설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 ‘신동방정책(Act East)’, ‘주변국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을 추진 중인 인도는 빔스텍과의 연계를 통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빔스텍의 발전과 주요 협력 분야 및 성과를 분석, 신남방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협력안과의 연계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자 함.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공조와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포함한 빔스텍과의 장기적 협력안 마련을 고려해야 할 시점임.
- 일본은 2017년 ‘인·일 동방포럼(Act East Forum)’을 발족해 인도의 북동부 지역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빔스텍 회원국과의 협력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1) 이하 본문에서는 빔스텍으로 통일함.

2. 빔스텍 출범 배경과 주요 성과

가. 출범 배경

■ 빔스텍은 벵골만에 인접한 7개의 국가로 구성된 협력기구로 1997년 6월 방콕에서 출범함.

- 초기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태국 4개국으로 각국의 이니셜을 따서 BIST-EC(Bangladesh, India, 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으로 명명함.
- 그해 12월 빔스텍 장관급 회의에서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BIMST-EC(M: Myanmar)으로 변경, 2004년에 네팔과 부탄의 가입으로 지금의 7개 회원국 체제로 전환해 BIMSTEC을 구성함.
- 회원국 중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이면서 SAARC 회원국이며,²⁾ 미얀마와 태국은 ASEAN 회원국임.

그림 1. 회원국 및 벵골만 위치



자료: BIMSTEC, www.bimstec.org.

■ 빔스텍의 창설은 남아시아 지역 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기인함.³⁾

- 인도의 동방정책은 중국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⁴⁾
- 1979년 덩샤오핑(Deng Xiaoping)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및 경제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입국이 됨.⁵⁾

2)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으로 회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7개국임.

3) RIS(2016).

4) Haokip, T(2011).

5) WTO Statistic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은 중국이 제1수입국이며, 부탄, 네팔은 인도가 제1수입국임(검색일: 2018. 12. 7).

- 1991년 인도의 나라심하 라오(Narasimha Rao) 총리는 동남아국과의 무역, 투자 등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방 정책을 수립함.
- 이어 집권한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Atal Bihari Vajpayee) 총리는 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확장된 동방정책을 펼쳤고, 이는 빔스텍의 창설로 이어짐.

■ 빔스텍 창설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간의 문화적, 지리적 인접성과 자원을 활용한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공유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빔스텍의 역내 협력은 국가 평등,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 내정 불간섭, 평화적 공존 및 상호 이익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 무역 활성화 △ 국경을 초월한 연계성 구축 △ 투자 및 관광 촉진 △ 기술 협력 △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빔스텍은 지역 무역 활성화와 지역 가치사슬 연계를 통해 잠재된 경제 성장 촉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빔스텍은 천연가스(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수자원(네팔, 부탄)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역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 문제 개선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함.⁶⁾
- 쌀(인도, 태국), 황마(인도, 방글라데시), 차(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향신료(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지역 내 생산 특화를 통해 세계 시장 경쟁에 공동 대응하고자 함.⁷⁾

■ 2016년 기준 회원국 인구수는 약 1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GDP 총 규모는 3조 5,000억 달러로 최근 3년간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6%임.

- 2015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연령은 28.6세이며, 2017년 기준 GDP 규모는 한국과 러시아의 GDP를 합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⁸⁾

표 1. 회원국 인구수, 평균연령, 최근 3년 GDP 성장률 및 GDP 규모

(단위: 백만 명, 연령, %, 백만 달러)

국가	인구 (2016)	평균 연령 (2015)	GDP 성장률(전년 기준, %)				2017 GDP
			2015	2016	2017	평균	
방글라데시	163	25.6	6.84	7.2	7.4	7.15	249,723
부탄	0.8	26.7	5.4	6.6	8	6.67	2,410
인도	1,324	26.6	8.16	7.11	6.74	7.34	2,597,491
미얀마	52.9	27.9	6.99	5.87	6.72	6.53	69,322
네팔	29	23.1	3.32	0.41	7.5	3.74	24,472
스리랑카	21.2	32.3	5.01	4.47	3.11	4.2	87,174
태국	68.9	37.8	3.02	3.28	3.9	3.4	455,221

자료: Statista 및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6) 인도의 가스 매장량은 2016년 기준 1조 4,000억 입방미터(세계 24위)이고, 방글라데시는 2016년 기준 3,800억 입방미터(세계 37위)이며, 미얀마는 2010년 기준 2,800억 입방미터(세계 44위)임. 수력발전의 경우, 2017년 기준 히말라야 산맥 인근 국가인 네팔(세계 23위)과 부탄(세계 44위)은 각 84,000MW, 30,000MW 전력 생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7) RIS(2004).

8) 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2017년 기준 GDP의 합은 약 3조 1,000억 달러임.

-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열악한 인프라, 정치적 문제로 회원국 간 교역 및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정치적 갈등 조정, 회원국들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 등을 바탕으로 연계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⁹⁾
-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오랫동안 지속한 해양 영유권 분쟁을 일단락하고,¹⁰⁾ 다카(Dhaka)-통기(Tongi)-조드뿌르(Joydebpur) 열차 프로젝트 공동 추진, 인도의 북동부 주(States)를 통한 치타공(Chittagong) 항구 이용을 승인하는 등 상호 지역적 연계성을 넓히고 있음.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로HINGYA(로HINGYA) 난민 문제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4차 정상회의에는 관련 문제에 관한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참여함.¹¹⁾
 - 2014년 방글라데시 다카(Dhaka)에 공식 사무국을 설립하고 빡스텍 운영을 체계화함.

나. 주요 협력 분야 및 성과

■ 빡스텍은 분야 기반(sector-driven)의 협력 조직으로 현재 총 14개의 협력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 담당 국가를 지정함.¹²⁾

- 초기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역, 기술, 에너지, 운송 및 통신, 관광, 어업이었으며, 2008년 농업, 공공 보건, 빈곤 완화, 대테러, 환경 및 재해관리, 문화, 인적 교류, 기후 변화가 추가되었음.

표 2. 빡스텍 주요 협력 분야

분야	담당국	관련 협의체 및 성과
무역	방글라데시	·무역 및 경제 장관급 회의 ·무역 및 경제 고위급 회담
투자	방글라데시	·무역 협상 위원회 및 워킹 그룹 ·빡스텍 경제 포럼 ·빡스텍 비즈니스 포럼
교통 및 통신	인도	·빡스텍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연구(BTILS*) 운영 ·회원국 간 승객 및 화물 관련 자동차 협정(논의 중)
에너지	미얀마	·에너지 고위급(장관급) 회담 ·Task force, 전문가 그룹 회의 ·빡스텍 에너지 센터 건립 추진(인도, 벵갈루루) ·에너지 그리드 MoU 체결
관광	인도	·빡스텍 관광 발전 및 촉진 플랜 추진
기술	스리랑카	·빡스텍 기술 이전 기관 (Technology Transfer Facility) 설립 검토 중

9) 연계성 관련 내용은 나. 주요 협력 분야에 상세히 기술.

10)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약 2만 5,0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벵골만 지역의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왔으나 2014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 지역의 약 2/3가 방글라데시에 속한다고 판결함.

11) 미얀마 정부는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로HINGYA족을 자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종교와 영국 식민통치의 잔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1960년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기점으로 탄압과 학살이 이어져 현재 많은 로HINGYA족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난민촌으로 이주하였음.

12) 빡스텍 주요 협력 분야 중 회원국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역과 교통 및 통신(연계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표 2. 계속

분야	담당국	관련 협의체 및 성과
어업	태국	·전문가 그룹 회의
농업	미얀마	·전문가 그룹 회의 ·9개(농업통계, 병충해 등) 프로젝트 수행 중 ·2019 농업 분야 장관급 회의 개최(미얀마), 스마트 농업 시스템 세미나 개최(인도) 예정
공공보건	태국	·전통 의학 네트워크 센터 건립 논의 중
빈곤 완화	네팔	·방글라데시의 미소금융(micro credit)을 바탕으로 한 빈곤 완화 이니셔티브 채택
대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인도	·대테러 및 초국가 범죄 합동 워킹 그룹 ·마약, 초국가 범죄, 국제적 테러에 대응하는 조약 체결
환경 및 재해관리	인도	·빔스텍 기후 센터 설립 논의 중
인적 교류	태국	·문화 연대 강화 프로젝트 운영 ·청년 대사 프로그램 ·빔스텍 연관 전시회 등 개최 ·빔스텍 정책 싱크탱크 네트워크 논의
문화 협력	부탄	·장관급 및 전문가 회의 ·문화산업 이니셔티브 채택

주: * BIMSTEC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Study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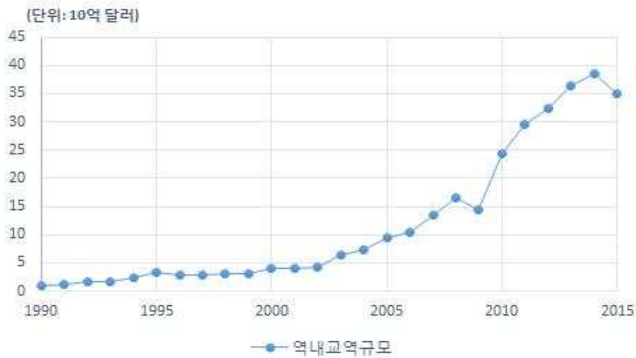
자료: BIMSTEC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2]는 빔스텍 협력 분야 및 담당국, 주요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인도는 교통 및 통신을 포함해 총 4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태국은 어업을 포함한 3개 분야의 담당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의장직(chairmanship)은 알파벳 차례로 회원국 간 순환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스리랑카가 의장국을 역임하고 있음.

■ [무역] 빔스텍 역내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 29억 달러였던 무역 규모는 2015년 기준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12배 증가함.

- 2000년 이후 빔스텍 역내 무역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에 38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한 후 최대치를 기록함.
- △ 2000년 스리랑카·인도 FTA △ 2004년 인도·태국 FTA △ 2006년 부탄·인도 상품 협정 △ 2009년 네팔·인도 FTA △ 2010년 아세안·인도 상품 협정, △2015년 아세안·인도서비스·투자 부문 협정을 발효하는 등 회원국 간 지역무역협정(RTA)이 체결 되어 빔스텍 역내 무역 연계성이 높아짐.

그림 2. 빙스텍 역내 교역 규모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1. 1).

그림 3. 빙스텍 전체 교역 대비 역내 교역 비율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1. 1).

- 빙스텍 전체 수출 대비 역내 수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입대비 역내 수입 비율 또한 2015년 반등하며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 역내 수출과 수입 비율은 2.3%에 머물렀지만, 2015년 기준 각각 6.6%와 4.9%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빙스텍 역내 무역의 중심 국가는 인도와 태국이며, 2015년 기준 양국의 역내 수출 규모는 각각 180억 달러와 100억 달러임.
 - 아울러 인도는 약 104억, 태국은 약 4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3. 2015년 빙스텍 역내 무역 관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 수입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수입 합계
방글라데시		5,521.52	18.82	6.83	92.7	844.90	6,484.77
인도	517.89		1,013.99	419.09	642.4	5,211.84	7,805.21
미얀마	21.14	859.97		0.01	1.6	4,108.21	4,990.93
네팔	2.62	3,195.12	0.42		3.6	53.72	3,255.48
스리랑카	25.99	5,501.02	1.74	0.37		427.03	5,956.15
태국	34.77	3,113.56	3,359.36	1.71	33.5		6,542.90
수출 합계	602.41	18,191.19	4,394.33	428.01	773.80	10,645.70	35,035.44

주: 2015년 기준 부탄 무역통계 부재.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1. 1).

- 빙스텍 회원국은 역내 무역과 역내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FTA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음.
- 다음 단계 추진을 위하여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관세 협정, 무역 관련 기술적 지원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와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무역 적자(2015년 기준 방글라데시는 약 58억 달러, 스리랑카의 경우 약 52억 달러)를 보고 있으며, 국가 간 시장접근(Market Access), 규제 수준 등의 상이함으로 FTA 체결이 연기되고 있음.
- 인도는 제4차 정상회담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과 상품무역에 관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교통 및 통신] 최근 회원국 간의 육로, 수로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¹³⁾

- 빔스텍은 2004년부터 ADB와 인프라 및 물류 연구(BTILS)를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약 167개의 교통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 및 진행 중임.¹⁴⁾
- 이 분야의 담당국은 인도이며, 도로, 철도, 해양 운송, 항공, 무역 기구 및 물류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함.
- [고속도로] 인도 모레(Moreh)-미얀마-태국 매솿(Maesot)을 잇는 3국 간 고속도로(1,360km)가 대표적이며, 1~3년 이내 완공 예정(그림 4).
- 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무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등 많은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는 2012년 미얀마에 5억 달러의 건설비용을 제공함.

그림 4. 인도-미얀마-태국(IMT)
3국 간 고속도로(붉은색)



자료: NIKKEI ASIAN REVIEW(검색일: 2018. 10. 30).

그림 5. 인도-방글라데시 항구 이동 경로



자료: The WIRE(검색일: 2018. 10. 31).

13)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사함.

14) 세부 내용은 ADB의 Upgrading and Enhancement of the BIMSTEC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Study 보고서 참고.

그림 6. 깔라단(Kaladan) 프로젝트



자료: BNI(검색일: 2018. 10. 31).

그림 7. 인도-네팔 철도 건설 프로젝트



자료: NEWS WAVE(검색일: 2018. 10. 31).

- [해양 수송] 2018년 9월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물품(goods)을 인도 북동부 주를 경유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과 몽글라(Mongla) 항구로 운송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
 - 그간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간의 해상 운송은 스리랑카, 싱가포르 등을 우회 이용했으나, 2015년 해안운송협정을 맺고 인도·방글라데시 항구 간 직접 운송이 가능해짐(그림 5).
- [깔라단 프로젝트] 인도 콜카타(Kolkata)에서 미얀마 시트웨(Sittwe) 항구를 통해 인도 북동부 주 미조람(Mizoram)까지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수로와 육로가 종합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2019~20년 완공 예정임(그림 6).
 - 최근 인도는 미조람에서 미얀마 깔라단(Kaladan)을 잇는 도로 착공에 약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철도] 인도 비하르 주의 락사울(Raxaul)에서 네팔 카트만두(Kathmandu)를 잇는 철도 건설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철도 건설을 위한 관련 조사를 착수함(그림 7).
 - 아울러 양국은 사상 처음 인도 비하르(Bihar) 주의 자야나가르(Jayanagar)에서 네팔 자낙푸르(Janakpur)를 잇는 광궤철도를 운행하기로 논의하였으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전동차 협정]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은 2015년 전동차 협정(Motor Vehicle Agreement)을 맺음.
 - 과거 화물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국경 진입 시 허가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협정을 통해 삼국 간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경 이동 절차가 매우 간소화됨.¹⁵⁾
 - 인도와 미얀마는 올해 5월 여권 및 비자 소지 시, 추가적인 허가증(special land entry permission) 없이 육로를 통해 양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Land Border Crossing Agreement를 체결함.¹⁶⁾

15) 부탄은 국회 승인 불가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16) 과거 미얀마를 여행하려는 인도인은 출입증을 소지하고 라이선스 가이드(하루 60달러)를 고용해야 했음.

표 4. 빙스텍 회원국 간 주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동향

고속도로	인도 모레(Moreh)-미얀마-태국 매솿(Maesot)을 잇는 3국 간 고속도로(1,360km) 건설 중
철도	인도 비하르 주의 락사울(Raxaul)에서 네팔 카트만두(Kathmandu)를 잇는 철도 건설 착수
물류	물품 수송 관련 인도 북동부 주를 경유해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과 몽글라(Mongla) 항구 이용에 대한 협약 체결
갈라단 프로젝트	인도 콜카타(Kolkata)에서 미얀마 시트웨(Sittwe) 항구를 통해 인도 북동부 주 미조람(Mizoram)까지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 진행 중
전동차 협정	회원국 간 국경 진입 절차를 간소화

자료: 저자 작성.

3.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중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함.¹⁷⁾

- 신남방정책은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협력을 추구함.
- 3P(People 사람, Peace 평화, Prosperity 공동번영)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이 국가들과 구축하여 △ ‘사람’ 간 교류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기반을 다지고 △ 실질협력 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해 상생 번영의 기회를 확대하고 △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인도를 순방,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모디 총리와 공유하고 한·인도 강점을 융합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한·인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접점을 근간으로 ‘3P 플러스’,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그리고 미래(Future) 협력에 기반한 양국 협력 증진에 합의함.
 - 양국 정상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교류 및 소통창구 확대, 경제협력 강화, 역내 평화 및 안정, 미래성장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2030년까지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함.

17)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광성일 외(2018),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29호를 발췌·인용하였음.

■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빡스텍 회원국 간 증가하는 교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빡스텍 국가 간의 협력은 인도의 ‘주변국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과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기반으로 한 인도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변국우선정책] 인도의 주변국우선정책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인도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모디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부탄을 방문함.
 - 모디 총리는 부탄 순방에서 ‘B4B(Bharat for Bhutan, Bhutan for Bharat)’를 언급하며 양국의 안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함.¹⁸⁾
 - 아울러 슈슈마 스와라즈(Sushma Swaraj) 인도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를 이어 방문했고, 모디 총리는 인도 총리 중 17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하였음.¹⁹⁾

■ [신동방정책] 인도의 신동방정책은 1990년대 인도정부의 외교정책인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확대버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경제협력 및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 인도정부는 1991년 기존의 네루식 사회주의(Nehruvian Socialism)로부터 시장 자유화, 민영화로의 경제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남아 지역과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방정책’을 추진함.
- ‘신동방정책’은 2014년 1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인도·ASEAN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Act East’ 용어는 2011년 인도에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당시 국무장관)이 한 연설 중 “Not just to look East, but to engage East and act East”에서 착안하여 대중화되었음.²⁰⁾
- 인도정부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
 - 2018년 10월 28~29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모디 총리는 13차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해 양국의 포괄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인도·미국·일본은 2014년 6월 합동 해상훈련(Malabar Exercise)을 실시했으며, 이후 일본은 합동 해상훈련에 영구(permanent)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표 5. 동방정책-신동방정책 비교

	동방정책(1990년대)	신동방정책(2014년~)
핵심 목표	경제협력	경제 및 안보 협력
범위	동남아시아 중심	동남아시아 + 동아시아(한국, 일본, 미국 등)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인도정부는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쌈(Assam),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미조람(Mizoram)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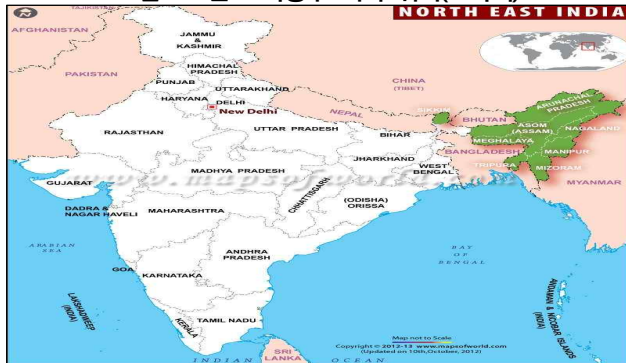
18) Bharat는 힌디어의 영어식 표기로 인도를 뜻함.

19)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후 2015년까지 총 37번의 외교 순방 중 25번을, 슈슈마 스와라즈 장관은 28번 중 21번을 아시아국에 방문함 (<https://www.nbr.org/publication/reorienting-indias-foreign-policy-neighborhood-first/>).

20) The Diplomat(2014. 11. 17), “Modi unveils India’s Act East Policy’ to ASEAN in Myanmar”(검색일: 2018.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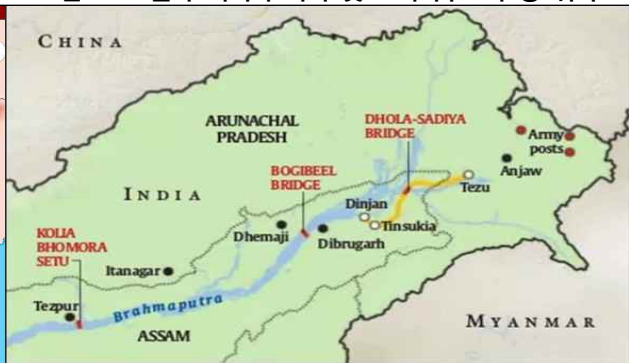
- 북동부 지역(그림 8)은 빙스텍 회원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의 접경지이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문으로, 모디 총리는 북동부 지역의 발전은 인도 성장의 엔진이라고 언급함.
- 열악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인도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정부는 아쌈과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잇는 ‘드홀라(Dhola)-사디아(Sadiya)’ 다리를 건설하고(그림 9) 아쌈에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을 이용한 수로 개발, 공항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8. 인도 북동부 지역 위치(초록색)



자료: Mapsofworld(검색일: 2018. 11. 4).

그림 9. 드홀라-사디아 다리 및 브라마푸트라 강 위치



자료: Olive Green Institute(검색일: 2018. 11. 2).

나. 한국의 빙스텍 무역·투자 현황

■ 한국·빙스텍 간의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350억 달러이며, 2008년 무역 규모 대비 약 28% 증가함(표 6).

- 빙스텍의 주요 무역국은 중국, EU, 미국, 일본이고, 한국은 빙스텍의 9번째 무역국임.²¹⁾
- 중국은 빙스텍과 2017년 기준 2,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였고, 2008년 무역 대비 약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일본·빙스텍 무역 규모는 약 720억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10% 성장함.
- 2017년 기준 한국과 빙스텍 간의 무역 규모는 중국·빙스텍 무역 규모 대비 약 18%, 일본 대비 약 49%를 기록함.

표 6. 빙스텍 주요 무역국

(단위: 10억 달러, %)

순위	무역국	2008	2017	증감률
1	중국	102.53	199.43	94.51
2	EU	144.08	168.13	16.69
3	미국	84.15	123.71	47.01
4	일본	65.53	72.42	10.51
5	홍콩	17.71	62.89	255.04
6	싱가포르	49.82	48.01	-3.64
7	말레이시아	30.42	40.64	33.61
8	인도네시아	21.62	36.53	68.95
9	한국	27.96	35.69	27.65
10	호주	27.10	31.09	14.75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2. 10).

21) EU 개별 회원국과 빙스텍 간의 무역 및 빙스텍 회원국 간의 역내 무역은 제외한 순위임.

표 7. 한국·빔스텍 국가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무역 합계 대비 %)

	2015				2016				2017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방글라데시	1,208.79	0.2	335.26	0.1	1,158.42	0.2	293.11	0.1	1,276.32	0.2	285.76	0.1
부탄	4.86	0.0	0.01	0.0	3.69	0.0	0.00	0.0	11.44	0.0	0.01	0.0
인도	12,029.59	2.3	4,240.56	1.0	11,596.03	2.3	4,189.28	1.0	15,055.54	2.6	4,947.85	1.0
미얀마	659.90	0.1	505.68	0.1	760.72	0.2	458.67	0.1	573.17	0.1	463.34	0.1
네팔	25.62	0.0	1.91	0.0	25.51	0.0	1.79	0.0	34.48	0.0	1.91	0.0
스리랑카	277.84	0.1	84.47	0.0	275.51	0.1	88.54	0.0	286.84	0.1	84.13	0.0
태국	6,361.61	1.2	4,854.35	1.1	6,481.53	1.3	4,562.81	1.1	7,462.17	1.3	5,204.67	1.1
빔스텍 무역합계	20,568.21	3.9	10,022.25	2.3	20,301.41	4.1	9,594.20	2.4	24,699.97	4.3	10,987.66	2.3
무역합계	526,753.01	100	436,486.93	100	495,417.72	100	406,181.94	100	573,627.37	100	478,469.17	100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2. 10).

- 최근 3년간(2015~17) 한국의 총 수출 대비 빔스텍 국가로의 수출은 3.9%에서 4.3%로 소폭 상승하였고, 총 수입 대비 빔스텍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3%에 정체됨(표 7).
 - 한국의 주요 빔스텍 무역국은 인도와 태국이며, 2017년 인도와 약 200억 달러, 태국과 약 120억 달러의 무역을 기록함.
- 한국의 대빔스텍 국가 주요 수출품은 전기기기, 철강, 기계류, 플라스틱이며, 주요 수입품은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에너지, 기계류, 알루미늄, 화학 제품 등임(표 8).

표 8. 한국의 빔스텍 국가 주요 수출·수입품(2017)²²⁾

(단위: 백만 달러, 무역 합계 대비 %)

순위	수출	수입
1	전기기기 4,491.45	전기기기 1,303.47
2	철강 3,570.23	광물성 연료에너지 1,209.82
3	기계류 2,772.10	기계류 1,016.88
4	플라스틱 2,258.04	알루미늄 1,004.61
5	진주, 귀석, 귀금속 1,582.63	유기화학 581.13
6	유기화학 1,221.07	철강 493.78
7	자동차 1,083.42	비편물제 의류 481.52
8	광물성 연료에너지 922.03	고무 381.05
9	고무 627.33	플라스틱 314.60
10	광학정밀, 의료기기 600.88	편물제의류 276.05

자료: World Bank WITS(검색일: 2018. 12. 10).

■ 한국의 빔스텍 지역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기준 9억 3,000만 달러로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가 정체되어 있음(그림 10).

22) HS 2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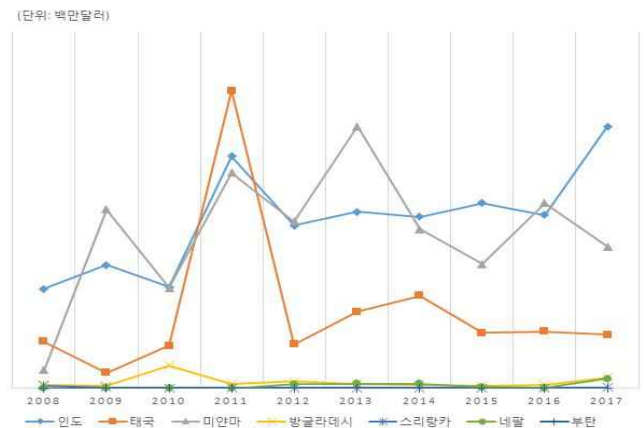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한국의 빡스텍 지역 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총 규모 대비 약 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2017년 기준 한국의 빡스텍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 대비 약 6%, 중국 대비 약 31%, 베트남 대비 48%임.
- 빡스텍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인도, 미얀마, 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그림 11).
- 2017년 기준 인도에 5억 1,000달러를 투자하였고, 미얀마에 약 2억 8,000달러, 태국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함.
- 한국의 빡스텍 지역에 대한 주요 해외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 광업임.
- 최근 10년간(2008~17)의 빡스텍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제조업은 55%를, 광업은 약 23%를 차지함(표 9).

그림 10. 한국의 주요국 및 빡스텍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2. 10).

그림 11. 빡스텍 국가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2. 10).

표 9. 우리나라의 빡스텍 국가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기타 산업	총합계
2008	208.7	39.9	16.1	0.9	33.7	14.5	22.2	336.0
2009	241.1	352.9	23.4	2.9	0.0	2.4	9.5	632.1
2010	201.9	202.1	38.2	32.5	10.6	14.1	27.2	526.6
2011	967.0	370.3	36.7	65.5	3.8	5.0	24.6	1,472.9
2012	300.6	236.0	28.7	88.8	6.0	13.9	82.1	756.2
2013	412.4	377.2	22.0	80.7	10.7	49.3	77.1	1,029.4
2014	476.5	221.4	13.8	22.5	26.1	36.2	51.4	847.7
2015	379.3	181.6	38.2	16.3	6.1	59.5	44.8	725.9
2016	395.2	90.5	35.8	18.6	181.5	27.9	74.6	824.1
2017	542.9	128.7	38.0	61.5	72.2	17.5	78.3	939.1
총합계	5,241.2	2,218.8	399.3	395.9	368.1	314.6	588.9	9,526.9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2. 10).

다. 빡스텍과의 협력 확대방안

■ 신남방정책을 통한 인도, 남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관계, 시장 진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빡스텍 중심 국가인 인도의 관심과 지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체되어 있던 빡스텍 국가 간 협력은 최근 인도의 빡스텍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빡스텍 사무국의 설립 등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이 높아지고 있음.
- 빡스텍이 출범한 지 21년이 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근접성에 비해 비정기적 정상회담 개최와 진전되지 않는 역 내 FTA 체결 등 회원국 간의 협력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18년 8월 제4차 빡스텍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각 국가는 평화, 번영, 행복을 구축하고자 하지만 상호 연계된 세계에서 단독으로 이행하기는 어렵다”며 빡스텍의 연계성(무역, 경제, 운송, 디지털, 인적 교류)을 강조함.
- 인도는 자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시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빡스텍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임.²³⁾
- 중국은 네팔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 10월 245억 원 규모의 군사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카트만두-키룽(Kiryong) 지역을 잇는 철도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스리랑카와 함반토다(Hambantota) 항구 이용권(99년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²⁴⁾
- 인도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7년 5월 50억 달러의 차관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안했으며, 방글라데시는 그해 10월 45억 달러로 수정 및 협정을 체결함.²⁵⁾

■ 일본은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북동부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른 빡스텍 회원국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²⁶⁾

-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누적)의 경우, 2000~17년 한국은 26억 달러, 일본은 27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은 일본의 약 10% 수준임.

표 10.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국 비중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16	2016/17	2017/18*	누적(2000~17)	비중
1	모리셔스	8,355	15,728	13,348	124,985	34
2	싱가포르	13,692	8,711	9,213	63,803	17
3	일본	2,614	4,709	1,263	26,938	8
4	영국	598	1,483	720	25,311	7
5	네덜란드	2,643	3,367	2,383	23,064	6
6	미국	4,192	2,379	1,744	22,066	6

23) 파키스탄은 1947년, 1965년, 1971년, 1999년 인도와 전쟁을 하였고 이후에도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2018년 11월 IMF 구제금융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파키스탄은 1980년 이후 IMF 구제 금융을 12차례 받음).

24) 인도와 부탄을 제외한 타 남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검토하고 있음.

25) 50억 달러는 인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차관으로, 인도정부는 20년 상환, 연이율 1%, 0.5%의 약정수수료를 제안했음.

26) Economic Times(2017. 9. 18), “Japan teams up with India for Northeast, to extend Rs 2,239-crore loans”(검색일: 2018. 11. 4).

표 10. 계속

순위	국가	2015/16	2016/17	2017/18*	누적(2000~17)	비중
6	미국	4,192	2,379	1,744	22,066	6
7	독일	986	1,069	1,012	10,710	3
8	사이프러스	508	604	332	9,488	3
9	프랑스	598	614	457	6,182	2
10	UAE	985	675	628	5,332	1
14	한국	244	434	295	2,558	0.7
17	중국	461	198	141	1,776	0.5
총		40,001	43,478	35,941	368,054	100

주: 인도회계연도 기준, *는 2017년 4~12월 기준임.

자료: 객성일 외(2018),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29호를 발췌 및 재인용.

- 일본은 2017년 12차 인도·일본 연례 정상회담에서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3억 달러의 차관 협약을 맺었으며, ‘인도·일본 동방포럼(Act East Forum)’을 발족함.
 - 일본정부는 인도 임팔(Impal), 마니푸르 지역에 일본회사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고 투자와 교류를 촉구하였음.
 - 아울러 빔스텍 협력방안, 무역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10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북동부 지역 도로망 개선 프로젝트(North East Road Network 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 ‘트리푸라 지역 산림 관리 프로젝트(Project for Sustainable Catchment Forest Management in Tripura)’, ‘우미엄-엄투루(Umiam-Umtru) 수력발전소 리노베이션(Project for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of Umiam-Umtru Stage-III Hydroelectric Power Station)’ 등 북동 지역에 대한 차관 협약을 맺음.²⁷⁾
 - 2018년 10월, 양국 정부는 제2차 인도·일본 Act East Forum 개최를 통해 북동부 지역의 주요 산업을 반영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함.
- 일본정부는 인적자원 관련 무상원조(JDS: Japanese Grant Ai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제도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와 활발한 인적 교류도 추진하고 있음.²⁸⁾
- 인도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협력은 인도 북동부 지역의 투자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표 11. 제2차 인·일 Act East Forum 주요 내용

인프라 구축	-메갈라야 프로젝트: 1단계) 투라(Tura)-달루(Dalu), 2단계) 실롱(Shillong)-도키(Dawki) 간 국도 건설 -겔레푸(Gelephu)-달루(Dalu) 산업 회랑 개발(ADB 합작) -두브리(Dhubri)-폴바리(Phulbari)를 잇는 다리 건설
산림 관리	-시킴(Sikkim)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 관리 프로젝트 -나갈랜드(Nagaland) 산림 보존 및 생계 수준 개선 프로젝트

27) 인도 외교부,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0542/List_of_AnnouncementsAgreements_signed_between_India_and_Japan_during_visit_of_Prime_Minister_to_Japan.

28) 미얀마, 방글라데시는 2001년, 스리랑카는 2010년, 네팔은 2015년, 부탄은 2018년에 시작함.

표 11. 계속

대나무 산업*	-북동부 지역 대나무 워크숍 개최 -일·인 북동부 지역 대나무 이니셔티브: 대나무 공예품, 대나무 장인 워크숍 등
재해 관리	-재해 관리 기술 협력, 훈련 프로그램 운영 -재해위험감소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JICA를 통한 일본 경험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인적 교류	-일본어 교육(아쌌 구와하티(Guwahati), 메갈라야 EFLU(외국어전문)대학 등 100개의 고등기관에 프로그램 설립 예정) -북동부 지역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외여행자 경고(Travel advisory) 하향 조정, 관광 활성화 추진

주: * 대나무: 북동부 지역은 대나무 관련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

자료: 주인도 일본대사관, www.in.emb-japan.go.jp.

■ 신남방정책은 △ 인도 북동부 지역 협력 확대 △ 빡스텍 사무국 지원 △ 빡스텍 분야국 협력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연계방안을 통해 빡스텍과의 폭넓은 경제협력 및 시장 접근을 추진할 수 있음.

- 빡스텍 중심 회원국인 인도를 통해 빡스텍 지역 내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직접 진출이 어려운 빡스텍 회원국으로의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인도 북동부 지역 협력 확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대한 관심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기술 협력, EDCF 등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빡스텍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볼 수 있음.
 - 북동부 지역위원회(NEC: North-Eastern Council)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의 핵심 기관으로, △ 항공 △ 도로 △ 철도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음.
- [빡스텍 사무국 지원 및 협력] ASEAN 및 SAARC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활동하는 것과 같이 빡스텍 정상 회담 및 주요 장관급 회담에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논의해볼 수 있음.
 - 빡스텍 회원국들은 4차 정상회담에서 빡스텍 협력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히 운영하기 위하여 빡스텍위원회(BIMSTEC Permanent Working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개발 자금(Development Fund) 조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현재 빡스텍 사무국은 각 회원국별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이며, 인도는 2017/18 회계연도 기준 빡스텍 운영비의 32%를 지원하고 있음.²⁹⁾
- [주요 분야별 협력] 각 분야별 담당국을 접촉, 사업 수요를 조사해 한국의 강점을 적용한 협력방안을 구축해 볼 수 있음.
 - 지난 8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철도 산업 공동연구, 방위 산업 등에 관한 협력을 체결한 것과 같이, 분야별 담당국이 중시하는 사업의 수요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EDCF를 통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과의 건설, 통신, 보건 등 풍부한 개발 및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빡스텍과의 협력 확대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됨.

29) The Hindu(2018. 8. 30), "Challenges at BIMSTEC," <https://www.thehindu.com/todays-paper/tp-opinion/challenges-at-bimstec/article24814548.ece>.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빔스텍 회원국 청소년 방문 프로그램 및 학술 관련 인적 교류를 추진·확대해야 함.
 - '상생'을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인력 등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함께 추진해야 함.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찬완. 2017. 「빔스텍의 문제와 전망: 구조적,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3-2호. 한국태국학회.
- 김찬완. 2018. 「모디정부 외교정책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3권 2호. 남아시아연구소.
- 곽성일, 송영철, 이정미, 김도연, 김미림. 2018.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2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DB. 2018. "Updating and Enhancement of the BIMSTEC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Study Final Report."
- BIMSEC. 2018. "Fourth BIMSTEC Summit Declaration 2018."
- Embassy of Japan in India. 2018. "2nd meeting Japan-India Act East Forum(JIAEF)." (October 8)
- Haokip, T. 2011. "India's Look East Policy: Its Evolution and Approach." *South Asian Survey*, 18(2), pp. 239-257.
- Ind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Fast Track Diplomacy*.
- _____. 2018. "List of Announcements/Agreements signed between India and Japan during visit of Prime Minister to Japan."
- _____. 2018. "Translation of Prime Minister's Statement at BIMSTEC Plenary Session."
- Masudur, Mohammad and Chanwahn Kim. 2016. "Prospects for Economic of BIMSTEC: Trade and Investment Senario." *International journal of u-ande Service, Science and technology*, Vol 9, No 4, pp. 235-248.
- RIS(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oping Countries). 2004. "Future Directions of BIMSTEC: Towards a Bay of Bengal Economic Community."
- _____. 2016. "BIMSTEC, The Road Ahead."
- Sengupta, Jayshree. 2017. "BIMSTEC-FTA: A New Hope for Enhanced Regional Trade." ORF Issue Brief, No. 198.

[온라인자료]

- 노컷뉴스. 2018.11.21. 「경제위기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합의 실패」. <http://www.nocutnews.co.kr/news/5064341> (검색일: 2018. 11. 21).
- 수출입은행. 2018. EDCF 국가별 사업정보. <https://www.edcfkorea.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4001005001&phototype=list&pagesize=12&searchgubun=list&boardtypeid=293&boardid=60091>(검색일: 2018. 11. 21).

- KBS NEWS. 2014. 7. 9. 「벵골만 영유권 소송서 방글라데시 승리」.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90372>(검색일: 2018. 10. 22).
- Chahal, Col DJS. 2017. "Military and Socio-Economic Significance of Dhola-Sadiya Bridge." Olive Green Institute. <http://www.olivegreens.co.in/blog/military-and-socio-economic-significance-of-dhola-sadiya-bridge>(검색일: 2018. 11. 2).
- De, Prabi, 2017. Big Ideas to Shape BISTEC's Future. <http://www.eastasiaforum.org/2017/09/15/big-ideas-to-shape-bimstecs-future/>(검색일: 2018. 10. 14).
- _____. 2018. BIMSTEC Must Scale New Height. <http://www.eastasiaforum.org/2018/08/25/bimstec-must-scale-new-heights/>(검색일: 2018. 11. 2).
- Mishra, Rahul and Delhi, Sana Hashmi. 2017. "Can India Take the Lead in BIMSTEC?" <http://www.eastasiaforum.org/2017/09/23/can-india-take-the-lead-on-bimstec/>(검색일: 2018. 10. 14).
- Padmaja, G. 2016. "Coastal Shipping Could Propel Ties Between India and Bangladesh." The Wire. <https://thewire.in/diplomacy/coastal-shipping-could-reinvigorate-bilateral-ties-between-india-and-bangladesh>(검색일: 2018. 10. 31).
- _____. 2017. "BIMSTEC: Where India's 'Neighbourhood First' and 'Act East' Meet."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http://www.maritimeindia.org/View%20Profile/636428519887437188.pdf>(검색일: 2018. 10. 5).
- Pal, Deep. 2016. Reorienting India's Foreign Polic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https://www.nbr.org/publication/reorienting-indias-foreign-policy-neighborhood-first/>(검색일: 2018. 10. 20).
- Zhou, Y., M. Hejazi, S. Smith, J. Edmonds, H. Li, b L. Clarke, K. Calvina and A. Thomson. 2015. "A Comprehensive View of Global Potential for Hydro-generated Electricity." Energy&Environmental Scienc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9911353_A_Comprehensive_View_of_Global_Potential_for_Hydro-generated_Electricity(검색일: 2018. 12. 7).

[영문 기사]

- "India to Offer \$5 Billion Line of Credit to Bangladesh, Highest for Any Country So Far." 2017. The Economic Times. (Apr 4).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india-to-offer-5-billion-line-of-credit-to-bangladesh-highest-for-any-country-so-far/articleshow/57999048.cms>(검색일: 2018. 11. 5).
- "India-Thailand Difference Delaying FTA under BIMSTEC." 2017. The Financial Express. (Aug 7). <https://thefinancialexpress.com.bd/economy/bangladesh/india-thailand-difference-delaying-fta-under-bimstec-1502090860>(검색일: 2018. 11. 13).
- "Japan teams up with India for Northeast, to extend Rs 2,239-crore loans." 2017. The Economic Times. (Sep 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frastructure/japan-teams-up-with-india-for-northeast-to-extend-rs-2239-crore-loans/articleshow/60703906.cms>(검색일: 2018. 11. 4).

- “Modi Backs India-Myanmar-Thailand highway’s Indochina extension.” 2017. *NIKKEI Asian Review*. (Dec 29).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Modi-backs-IndiaMyanmarThailand-highway-extension>(검색일: 2018. 10. 30).
- “BBIN pack: India, Bangladesh, Nepal okay vehicle movement procedure.” 2018. Live Mint. (Jan 15). <https://www.livemint.com/Politics/kVaw1u3uvAq3SVugqTGkCI/BBIN-pact-India-Bangladesh-Nepal-okay-vehicle-movement-pr.html>(검색일: 2018. 10. 29).
- “Grading India’s Neighborhood Diplomacy.” 2018. The Diplomat. (Jan 30). <https://thediplomat.com/2017/12/grading-indias-neighborhood-diplomacy/>(검색일: 2018. 10. 16).
- “Nepal, India to expedite Raxaul-Kathmandu rail project.” 2018. NEWSWAVE. (July 11). <http://www.newswave.in/nepal-india-to-expedite-raxaul-kathmandu-rail-project/>(검색일: 2018. 10. 31).
- “Kaladan road construction temporarily halted due to lack of workers.” 2018. BNI Multimedia Group. (Aug 1). <https://www.bnionline.net/en/news/kaladan-road-construction-temporarily-halted-due-lack-workers>(검색일: 2018. 10. 31).
- “Making Sens of India’s Revived Interested in BIMSTEC.” 2018. The Diplomat. (Aug 30). <http://thediplomat.com/2018/08/making-sense-of-indias-revived-interests-in-bimstec/>(검색일: 2018. 11. 9).
- “Challenges at BIMSTEC.” 2018. The Hindu. (Aug 30). <https://www.thehindu.com/todays-paper/tp-opinion/challenges-at-bimstec/article24814548.ece>(검색일: 2018. 11. 12).
- “BIMSTEC hopes to finalise agreements on goods trade, customs cooperation by next year.” 2018. The Hindu Business Line. (Sep 6).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macro-economy/bimstec-hopes-to-finalise-agreements-on-goods-trade-customs-cooperation-by-next-year/article24885010.ece>(검색일: 2018. 11. 2).
- “India, Bangladesh further widens connectivity network in region.” 2018. The Economic Times. (Sep 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india-bangladesh-further-widens-connectivity-network-in-region/articleshow/65862959.cms>(검색일: 2018. 10. 29).

[기타 자료]

- 빔스텍 홈페이지. <https://www.bimstec.org>(검색일: 2018. 10. 1~12. 10).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8.12.10.).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natural_gas_proven_reserves(검색일: 2018. 12. 7).
- 인도 외교부 신동방정책 Q&A
<https://www.mea.gov.in/lok-sabha.htm?dtl/28721/question+no1743+act+east+policy>(검색일: 2018. 10. 23).
- International Hydropower Association <https://www.hydropower.org/country-profiles/nepal>(검색일: 2018. 12. 7).
- JDS 홈페이지 <http://jds-scholarship.org/>(검색일: 2018. 12. 10).
- Maps of World. <https://www.mapsofworld.com/india/north-east-india-map.html>(검색일: 2018. 11. 4).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검색일: 2018. 10. 27).
- World Bank.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gdp-ranking>(검색일: 2018. 10. 27).
- World Bank WITS. <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18. 11. 1),(2018.12.10.).